

“오랜 기억 품은 ‘동구인문학당’에서 만나요”

동명동 70년 가옥 리모델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본채 곳곳 작가들 작품 장식
신축건물엔 인문관·공유부엌
가족참여 강좌·프로그램 계획
동구 5개 서점 추천도서 비치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새롭게 문을 연 ‘동구인문학당’은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함께 음식을 만드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동구인문학당 내부모습.



다. 개성 넘치는 카페와 음식점들은 많지만 마땅한 문화공간이 적은 점은 늘 아쉬웠다. 이제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덧붙이며 추억을 만들어갈 멋진 공간이 탄생했다. 강연을 듣고, 오래된 LP로 음악을 듣고, 차를 나누고, 책을 읽고, 함께 음식을 만드는 인문 문화 활동의 거점이다.

인문학당은 70여년된 오래된 가옥과 신축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본채를 리모델링하고 정원을 사이에 두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 최귀동 건축사(에이스케이프 대표)가 참여했고, 신양호 작가 등 지역의 예술가들이 공공예술프로젝트 ‘별별별서’(디렉터 정유진)를 통해 공간을 기획하고 만들어간 점이 특징이다.

서석교회 주차장 바로 옆에 자리한 인문학당에 들어서면 한옥과 양옥이 나란히 서 있는 독특한 집이 방문객을 맞는다. 붉은 벽돌 굴뚝도 인상적이다. 영화에 등장할 것 같은 삼각지붕의 양옥집으로 들어서면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담긴 나무 바닥이 눈길을 끈다. 가파른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만나는 다락방은 근사한 공간이다. 햇살이 비추는 다락방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프

로그래미이 운영될 예정이다.

양옥과 한옥을 이어주는 복도형 마루를 지나면 한옥 서까래가 운치를 더하는 넓은 공간과 다실을 만난다. 본채 곳곳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장식돼 있다. 천정에 걸린 다양한 전통과 현대적 병풍, 유리창을 장식한 스테인드 글라스, 직접 짠 나무 의자와 탁자, 정성들여 빛은 도자기, 쪽염색 패브릭, 티 테이블 등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의 향연이다.

본채에서는 공간의 내력을 말해주는 아카이브 전시와 함께 인문동아리 활동 등이 이뤄진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참여하는 강좌와 한옥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살린 규방 프로그램 그림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을 마주 보고 들어선 신축 건물은 인문관과 공유부엌으로 구성돼 있다.

조대영씨가 프로그램 디렉터로 참여하고 있는 인문관에 들어서면 다양한 책이 꽂힌 서가가 눈에 띈다. 지역문화와 5·18을 다룬 책을 비롯해 ‘심가네 박씨’ 등 동구 지역 5개 서점이 철학, 페미니즘 등 서점의 특성에 맞게 추천한 책 등을 비치했다. 또 공유부엌이 있는 점을 감안, 음식 관련 인문학 서적을 갖췄으며 그림책 전문

가 노미숙씨가 추천한 그림책도 구비했다.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 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2층 공간은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문관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동아리를 결성,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작가를 비롯한 저자 북토크 등도 열 계획이다. 특별전으로는 ‘어린이와 특별전’, ‘5·18 도서전’, ‘문고본전’ 등을 기획 중이다.

주방시설을 갖춘 공유부엌도 눈길을 끈다. 일상과 밀접한 음식문화 역시 인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기에 이곳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다솜·위승연 작가 등이 제작한 도자기 스토폴과 오브제 등이 놓인 공유부엌에서는 광주의 오래된 음식점 주인들에게 직접 요리를 배우보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음식 아카이브를 영상과 책으로 기록하는 작업도 구상 중이다.

인문학당 운영을 책임지는 강보선씨는 “1월에는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2월부터 각각의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의 062-608-217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의 책>

동구 인문학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 인생의 책 공유 프로그램’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책 중 인생에 각별한 책 1권을 선정해 이유를 책 속지에 적어 기증하는 이벤트다. 기증한 책은 인문학당 서가 ‘내 인생의 책 코너’에 꽂히며 참여자에게는 문구 기념품과 프로그램 우선 참가 혜택을 부여한다.

클래식으로 듣는 ‘로미오와 줄리엣’

광주시향, 27일 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의 GSO 오티움 콘서트 I ‘로미오와 줄리엣’이 27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오티움 콘서트’는 음악의 스토리를 해설로 풀어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이다. 이날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작으로 하는 샤를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요 곡과 차이콥스키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을 예술감독 홍석원의 지휘로 들려준다.

이날 공연에서는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요 아리아 ‘꿈속에 살고 싶어’와 ‘사랑, 사랑! 아 떠오르는 태양이여!’를 시작으로 ‘가세요! 용

서하겠어요... 우리의 첫날 밤’, ‘아! 이곳은 어둡고 조용한 무덤’ 등을 들려준다. 로미오 역은 테너 강요셉이, 줄리엣 역은 소프라노 박소영이 맡는다.

강요셉은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과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수학했고 2003년부터 도이체오페라 베를린 주역 가수로 활동했다. 이후 뉴욕, 비엔나, 파리, 뮌헨, 로마 등의 무대에 올랐으며 국립오페라단, 서울시향, KBS교향악단과 협연했다.



소프라노 박소영



테너 강요셉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차이콥스키 초기 작품을 대표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을 연주하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전석 1만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예매.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서울대 성악과,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박소영은 지난 2019년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밤의 여왕 역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데뷔했으며 미국 제57회 그래미어워드에서 최고 엔지니어상과 최고 클래식 음반

전남도립미술관, 전시 연계 어린이 체험 활동지

‘어린이 아틀리에’서 배부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이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제작한 어린이 활동지를 배부한다.

활동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시 ‘태양에서 떠나갈 때’의 기획 의도 및 주제와 연계, ‘색’에 집중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그림 그리기, 종이 찢어 붙이기 등 어린이의 감각 발달을 위한 5가지 과정을 담았다. 작품에 표현된 ‘색’을 탐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색과 형태를 조합하는 창작 활동이다.

배부 및 활동은 지하 1층 ‘어린이 아틀리에’에서 진행된다. 3월 27일까지 만 6세~15

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배부되며, 수량은 1일 50개 한정 1인 1부다. 현장에서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본 미술도구(색연필, 크레파스 등)가 제공된다.

신청은 개인인 ‘어린이 아틀리에’에서 어린이 확인란 작성 후 수령,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전화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단체 예약자는 별도의 활동지 안내 교육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및 가정 학습자는 활동지 활용 방법을 다룬 교육용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영상은 도립미술관 유튜브 계정을 활용하거나 ‘어린이 아틀리에’ TV 모니터로도 재생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